

옛날(昔日) 가시리(伽時里) 문씨영감(文氏令監)이 주식이 웃언^{후다}¹⁾ 망신헤야²⁾ 뜰주식(女子息) 혼나를 납데다.

훈설 두설 일곱설(七歲) 나는 헤연 문씨아기씨가 가망박세기³⁾ 앗언⁴⁾ 드린동산⁵⁾에 탈⁶⁾ 타례 간디⁷⁾ 모진 광풍(狂風)이 부난 미연도질(迷眩道一)⁸⁾ 허연 너븐도⁹⁾로 진무루¹⁰⁾로 뱅굿오룸¹¹⁾으로 무년아리¹²⁾로 여무냥아리¹³⁾ 붉은오룸¹⁴⁾으로 살란이¹⁵⁾ 말찻¹⁶⁾ 알서늘(下善里) 웃서늘(上善里) 펭퐁치기¹⁷⁾로 뎅기멍¹⁸⁾ 부롬(風)을 먹고 구름을 타고 비치철국^{후고}¹⁹⁾ 인상식(人相食)허여설란 가막새²⁰⁾를 벗을 삼고 나미 돌굽²¹⁾은 집을 삼고 벡록담(白鹿潭)일 가 일곱헬(七年) 살아가니 몸동인²²⁾ 가시자왈²³⁾에 훑어 문딱²⁴⁾ 허물이요, 남(木)이 웨여 능()이 돋고 손(手)광 발(足)은 사름이 웨여 잊어지니, 호근이(好近里)²⁵⁾ 허포수(許手)가 토제비발레²⁶⁾ 토제비감투²⁷⁾ 진보선²⁸⁾에 진신²⁹⁾ 신어 일곱모작³⁰⁾ 마새총(馬上銃)을 둘러메고 부리 좁은 약돌기³¹⁾ 둘러지고 사농^{후고}³²⁾ 고지³³⁾를 갔더니 서얼³⁴⁾ 밑에 거무룩^흔³⁵⁾게 비친다. 짐승인가, 쟁역^{후고}³⁶⁾ 마새총(馬上)에 귀약통³⁷⁾ 남눌

- 1) 없어 하다가.
- 2) 늘어서.
- 3) 작은 바가지.
- 4) 가져서.
- 5) 표선면 가시리(表善面伽時里)의 지명.
- 6) 딸기.
- 7) 갔는데.
- 8) 길을 잃어서의 뜻.
- 9) 표선면 성읍리(表善面城邑里)의 지명.
- 10) 가시리(伽時里)의 지명.
- 11) 가시리(伽時里)의 악명(岳名).
- 12) 남원면(南元面)의 지명.
- 13) 남원면(南元面)의 지명.
- 14) 가시리(伽時里)의 악명(岳名).
- 15) 남원면(南元面)의 한라산(漢拏山) 가까이 있는 지명.
- 16) 남원면의 한라산 가까이 있는 지명.
- 17) 표선면 성읍리(表善面城邑里)의 지명.
- 18) 다니면서.
- 19) 미상. 음식을 아니 먹다의 뜻이라 함. 그 절기(節期)에 나는 곡식이란 뜻으로 「철곡(節穀)」이란 말이 있음.
- 20) 까마귀.
- 21) 나무 돌굽.
- 22) 몸뚱이는.
- 23) 가시덤불.
- 24) 모두.
- 25) 서호읍 호근리(西好邑好近里)
- 26) 가죽버선.
- 27) 가죽감투.
- 28) 땅이 진 때 신는 가죽 버선
- 29) 땅이 진 때 신는 가죽신.
- 30) 일곱마다.
- 31) 약도리. 노끈 따위로 그물같이 맷어 둘레를 끈으로 끊어 줄이고 속에 도시락 따위를 넣어 쳐 다니는 물건. 본래 약을 캐러 다닐 때 썼음.
- 32) 사냥하려
- 33) 꽂()
- 34) 돌무더기.
- 35) 거무스름한.

개³⁸⁾ 가막쉐³⁹⁾예 불을 놓자 흐단 모음이 어중간하여⁴⁰⁾ 간보난⁴¹⁾ 눈은 사름의 눈이요, 몸은 나미(木)가 된 게 이시니.

『너 생인(生人)이냐? 구신(鬼神)이냐?』

『생인(生人)이웨다.』

『그레민 너가 누구냐?』

『가시리(伽時里) 문영감(文令監) 뜰이웨다.』

『어떻 흐 난⁴²⁾ 이딜⁴³⁾ 오랐느냐?』⁴⁴⁾

『그런 것이 아니라, 혼일곱설(七歲)에 가망박세기 앗언 드린동산에 탈 타래 오랐단 모진 광풍(狂風)을 만난 미연도질(迷眩道一)하여 칠년을 살았수다.』

『뭣을 먹고 살았느냐?』

『부름을 먹고 구름을 타고 인상식(人相食)하고 비치철국하고 가막샌 벗을 삼고 나미(木) 돌굽은 집을 삼고 살았수다.』

허씨포수(許氏砲手)가 문씨아길 업언 오란⁴⁵⁾ 먼 올레예⁴⁶⁾ 세와 두고 문씨영감(文氏令監) 신디 들어간 보난 영감(令監)은 주식(子息)잃어 혼탄(恨嘆)허연 얼굴이 뜰려시난⁴⁷⁾

『영감은 무슨 수심(愁心)이 만흡네까?』

『난 늦어사 뜰 흐나를 나았는디 드린동산 탈 타래 가망박새기 앗언 간 게⁴⁸⁾ 모진 돌풍(突風)이 불어 미연도질(迷眩道一)하여 일곱헬 촛아도 촛다 버쳐 아기 생각흡네다.』

『영감님 저 올레예 강 보십서. 당신의 주식이냐, 아니냐.』

울단 눈물 확확 쓸고 나가 보니 내 주식이 분명하고 짓분⁴⁹⁾ 사례(謝禮)로 잘 데접(待接)하여 왕래⁵⁰⁾ 체와 보내고 아기안티 음식을 주둬 것⁵¹⁾을 아니 먹어가난 아방(父)이 말하기를

『어떤 일로 것을 아니 먹느냐?』

『나는 이 시상(世上) 사름이 아니우다. 할로벡관(漢擎百官) 산신벡관(山神百官)이우다.』

36) 겨냥하고

37) 화승총(火繩銃)의 화약을 담는 통.

38) 화약, 탄알 등을 넣는 그릇.

39) 옛 화승총의 귀약에 불을 붙이는 기구.

40) 미심스러워.

41) 가 보니.

42) 어찌해서, 어떻게 하니.

43) 여기를.

44) 왔느냐.

45) 업어 와서

46) 집으로 드는 골목길.

47) 틀렸으니까.

48) 간 것이, 가던데.

49) 기쁜

50) 왕래, 곧 왕래 여비

51) 음식, 먹이, 특히 어린 아기가 먹을 밥이나 죽을 「것」이라 함

흔 손에 단수육갑(單數六甲)을 지프고⁵²⁾ 흔 손에 오영팔과(五行八卦)를 지펴 천지운기(天地運氣)를 알아간다.

이 때, 정이원(旌義員)이 은통⁵³⁾을 이어불어⁵⁴⁾ 파직(罷職)이 됨에 삼만관숙 육방하인(六方下人) 부르고

『문씨아기실 독가매(獨駕馬)예 모사오라.⁵⁵⁾ 문점(問占)하여 보기여.⁵⁶⁾』

문씨아길 모사 가 동원(東軒) 안에 청호고 짐치원(金緻員)⁵⁷⁾ 말호기를

『은통을 이어불어 파직(罷職)하게 됨에 즘(占)을 빌어 흐저 흡네다.』

아가씨가 단수육갑(單數六甲) 지펴 보고,

『영주산⁵⁸⁾ 오롬(岳) 앞으로 셋 자국 드딘 디 텷벙에⁵⁹⁾ 일르민⁶⁰⁾ 있읍네다.』

일러 보니 과연 잇었더라. 파직(罷職)을 면해 간다.

은통은 관가(官家)에 들룬⁶¹⁾ 강ಡ인⁶²⁾이가 곱져분 건디.⁶³⁾

강ಡ인이가 문씨아기 ?라

『날 살려줍서.』

『너는 청산면 방뒷개로⁶⁴⁾ 독선(獨船) 잡아 육지(陸地)로 미연 도전호민⁶⁵⁾ 살 것이고 그렇지 아니호민 죽나.⁶⁶⁾』

『나가 67) 살아지만 아가씨나시 토시동⁶⁸⁾ 전전매기⁶⁹⁾ 열두폭 대공단(大貢緞) 훗단치메⁷⁰⁾ 를 허여 보내쿠다.⁷¹⁾

하고 미연도전허여 삽데다.

정이원(旌義員)은 어떻호민 은통 쫓은 은혜(恩惠)를 다호린 허연⁷²⁾

52) 짚고

53) 인궤(印櫃)

54) 잃어버려

55) 모셔오너라

56) 보겠다.

57) 김치(金緻)는 광해군(光海君)때 제주 판관(濟州判官)임.

58) 표선면 성읍리(表善面城邑里)에 있는 산.

59) 잔디 둉이.

60) 일구면.

61) 따른.

62) 통인(通引).

63) 숨겨버린 것인데.

64) 성산면 신양리포(新陽里浦)로.

65) 도망가면의 뜻.

66) 죽는다.

67) 내가.

68) 토시

69) 미상 의상(衣裳) 이름?

70) 훌치마.

71) 보내겠습니다.

72) 다하랴 해서

『연주청⁷³⁾에 오물떡⁷⁴⁾을 맹글아⁷⁵⁾ 칠첩반상(七一飯床)에 출령⁷⁶⁾ 아가씨안티 올리라.』
잘 위데^호고 삼만관숙이 독다메(獨駕馬)에 모사 오난, 문씨아기 부모(父母)덜안티 ^호는 말이
『난 금시상(今世上) 사름이 아니우다. 하로백관(漢擊百官) 산신백관(山神百官)으로 들어살 사름
이우다. 날랑 죽거들랑⁷⁷⁾ 아바지 살아난 당남우영⁷⁸⁾ 왕돌 알로⁷⁹⁾ 좌정(坐定)허영 정축(丁丑)날은
가는 사름 오는 사름안티 다 인정(人情)⁸⁰⁾을 받으쿠다.』

호난, 어떤 집원 가민 밧결딜로⁸¹⁾ 산신칠성(山神七星)으로 우로(慰勞)^호고, 어떤 딘 가민 안으
로 안칠성(一七星)⁸²⁾ 으로 우로(慰勞) 흡네다.

이 아길 잘 우로 아니호민 강비리도⁸³⁾ 불러주곡 물비리도 불러주곡 눈아피(眼疾)도 불러 주곡
열두승엄(十二凶驗)을 불러 줍네다.

이 한집을 잘 우로호민 그 집안이 일만복(一萬福)이 오는 법입네다.

- 表善面 伽時里 男巫 韓白 口誦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721-726.

73) 연주꿀

74) 찹쌀로 동그랗게 만들고 윗부분을 음쪽 패개 하여 꿀이나 엿을 넣은 떡.

75) 만들어.

76) 차려서.

77) 죽거든.

78) 가시리 (伽時里) 밭이름

79) 큰돌(바위) 아래로.

80) 신에게 바치는 재화(財貨)

81) 바깥으로.

82) 수렵(狩獵)의 풍등(豐登)을 시켜 주는 칠성.

83) 옴의 이름.